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정교회 한국대교구 교구장

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제는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론”이다. 사도들과 그 후의 정교회 교부들의 저서들에 평화에 대해 방대하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이 있지만, 한국에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평화에 대한 교부들의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교회의 세계적 스승이신 세분의 위대한 교부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제한했다. 즉, 위대한 교부들 중에서도 더 훌륭한 교부들이신 성 대 바실리오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만 살펴볼 것이다. “가장 위대한 빛을 발하는 세 분의 빛나는 별들”인 이 세 교부는 일치된 그리스도교의 첫 천년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4세기와 5세기에 살았고 활동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위대한 세계적 교부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 위대한 세 교부의 현존하는 저서들은 그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고의 목적인, 평화라는 주제에 대한 가르침만 예시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들 작품이 소장된 귀중한 영적 서고에서 우리는 평화에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텍스트만을 선별할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첫째, 그들이 당대의 위대한 영적, 사회적 평화 주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둘째, 그들이 오늘날까지 평화라는 주제에 관련한 정교회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한국 문헌에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 가르침에 대한 연구가 희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독창성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연구의 독창성은 또한 해당 교부 문헌이 처음으로 한국어로 소개되고, 다른 언어가 아닌 원래 기록된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주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각주와 참고문헌에 표시된 대로 1차 자료만 사용

2 인간과 평화 · 제3권 제2호(통권 5호)

했다. 참고문헌에서는 여러 언어로 쓰인 몇 가지 2차 자료도 추가로 언급한다.

핵심 단어 : 정교회, 교회의 교부들, 평화, 전쟁, 욕망, 바실리오스, 그레고리오스, 크리소스토모스

정교회¹⁾는 “교부들의 교회”라고도 말한다²⁾. 정교회는 거룩한 교부들의 삶의 모본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부³⁾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목자들이다. 교부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글과 말로써,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써, 그리스도교 믿음의 스승이자 올바른 인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올바른 이론과 올바른 행실은 교부들이 가진 두 가지 특성이다. 첫 천 년간 분열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지역 공의회와 세계 공의회 때 많은 교부들이 신자들의 가장 앞에 있었고, 또한 그들의 저서들은 올바른 교리와 윤리를 명확히 하고, 교회를 위협에서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교부들은 언어에 따라 그리스 교부들, 라틴 교부들, 시리아 교부들로 분류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서에는 평화에 관한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다. 본고에서 이루어질 연구와 성서의 평화에 관련한 연구들이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따로 성서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과 그 후의 정교회 교부들의 저서들에는 평화에 대해 위대하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평화에 관해 교부들이 남긴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 이 논문은 최근(2022년 6월 10일)에 안식한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추모하며, 그분이 한국에서 47년 동안 하신 자애로운 사목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과 큰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친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위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하느님과 자기 자신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크나큰 열정으로 일했다.

- 1) 정교회에 관한 방대한 참고 문헌 중에서 독자에게 다음 두 권의 책만 추천한다.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2008); Ware(2015). 전쟁 문제에 대한 정교회의 관점에 대해 또한 다음을 추천한다. Hamalis and Karras(2017).
- 2)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된 Joseph Ratzinger 교수의 “동방교회의 신학은 교부들의 신학과 다른 것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이다.(참조. Ratzinger(1969), 22) 정교회는 또한 “부활의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I고린토15:17)라고 사도 바울로가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축일을 크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 3) 교회의 교부들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참조. Quasten(1993), vol. 1, 9-12; Χρίστου(1981), 22-29.

는 정교회의 세계적 스승이신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제한했다. 즉, 위대한 교부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명망 높은 교부들이신 성 대 바실리오스⁴⁾,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⁵⁾,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⁶⁾이다. “가장 위대한 빛을 발하는 세 분의 빛나는 별들”⁷⁾인 이분들은 일치된 그리스도교회의 첫 천년의 시대에, 구체적으로는 4세기와 5세기에 살았고 활동했으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위대한 세계적 교부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케사리아의 대주교인 바실리오스는 성서에 근거한 정교회 공동체 수도원의 설립자이고, 그리스도교적 자선과 사회 복지의 조직가이기도 하다. 그는 훌륭한 가르침과 활동으로 “대(大)”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레고리오스는 나지안조스의 주교였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고 시인이어서, 교회에서는 복음사가이자 신학자인 요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신학자”라는 명칭을 그에게 부여하며 공경을 표한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요한은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교회의 달변가로서, “크리소스토모스”, 즉 “금구(金口)”로 불렸다.

앞서 언급한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의 현존 저서들의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고의 목적인, 평화라는 주제에 대한 가르침만 예시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분들 작품이 소장된 귀중한 영적 서고에서 우리는 평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텍스트만을 선별할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는, 그분들이 당대의 위대한 영적, 사회적 평화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둘째로는, 그분들이 오늘날까지 평화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정교회 신학에 어떤 영향

4) 대 바실리오스에 대해 참조. Quasten(1993), vol. 3, 205-236; 파파도풀로스(2017); Xp ἱστού(1978).
 5) 그레고리오스 신학자에 대해 참조. Quasten(1993), vol. 3, 236-254; 파파도풀로스(2019).
 6)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 대해 참조. Quasten(1993), vol. 3, 424-482; 알렉시우(2014).
 7) 그들의 축일의 찬양송에서 성가 작가는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참조. Μηνάιο v Ἱανουαρίου(1979), 245.

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한국 문헌목록에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 가르침에 대한 연구가 희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독창성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독창성은 본고에 제시되는 교부 문헌 텍스트가 다른 언어가 아닌 원본상 기록 언어인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주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각주와 참고문헌에 표시한 대로 1차 자료만을 사용했다. 참고문헌에서는 여러 언어로 쓰인 몇 가지 2차 자료도 언급한다.

3차원적 평화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세 분의 교부들을 언급하면서, 평화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3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 주변 사람과의 평화이다.⁸⁾ 이는 간단히, 하느님과의 평화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과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의 수직적 차원은 수평적 차원과 십자형으로 결합되면서 평화의 신학적 차원에 상징을 부여한다. 그리스도교적 평화가 지속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욕망들을 죽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받아야 한다. 십자가의 길 외에 참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

8) 이에 대해 세 교부뿐만 아니라 정교회의 모든 교부들이 동의한다. 믿음의 핵심 문제에 대한 교부들의 동의는 'Consensus Patrum'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Patrum의 처음은 성 비켄디오스에 의해 Lérins라고 번역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단적 이해와 참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일곱 번의 모든 세계 공의회에 적용되었다. 나중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특정 신학적 문제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을 따르는 사람은 평화의 작은 조각만 발견할 뿐이며, 창조되지 않은 빛과 불멸하는 사랑이 성취된 평화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유통기한이 짧은 모조품인 가짜 평화만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정치적, 국가간의 전쟁은 항상 위협적인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다.

위대한 세 분의 교부들이 평화라는 위대한 영적 주제에 관해 가르치거나 행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깨지기 쉽고 덧없는 평화를 옹호하는 철학적 이론이나 정치적 방편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교부들은 “하느님의 평화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필립비4:7) 것으로,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하나의 인물이자, 이름이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필립비2:9)으로 믿었다. 평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평화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성 대 바실리오스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34:14)라는 시편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14:27)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높은 부름의 상”(필립비3:14)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구하십시오. 그것으로 세상의 소음들로부터의 해방을 구하십시오. 욕망에 동요되지 않고, 분명치 않은 것에 기초한 거짓 타협에 유혹되지 않는,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영혼의 상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느님의 평화”를(필립비4:7) 구하십시오.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을 일치시켜”(에페소2:15)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고, 평화를 가져오면서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고,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골로사이1:20)⁹⁾

평화라고 하는 가장 큰 덕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이 가르치는 3차원적인 평화는 너무나 고귀한 덕이어서, 사람이 제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정교회의 신학과 생활에서 평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성은 교회의 ‘온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신성한 예배, 특히 성찬예배의 평화에 대한 반복적인 요청과 기도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대 바실리오스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평화에 대한 신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위대한 교부들은 그들의 이름을 딴 두 가지 성찬전례의 본문을 만든 주요 작성자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정교회 신자들의 전례와 성사와 영성 생활의 중심이면서, 동방 교회의 탁월한 기도인 성체성혈성사¹⁰⁾에 따르면 많은 기원과 기도가 평화를 언급하고 있다. 성찬예배가 시작하면 바로 보제는 ‘평화의 연도’라고도 불리는 ‘대연도’에서 첫 세 개의 연도를 통해 모든 회중들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

9) Βασίλειος Καισαρείας(케사리아의 바실리오스)(이하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J.Migne(ed.), *Patrologia Graeca*(이하 PG) 29:376 B-C.

10) 성찬예배의 원본에 대해 참조. Goar(1960), 85-158; *Ἱερατικόν*(2007).

원하소서. /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 온 인류가 화합케 하소서.” 또한, 성서 봉독과 신앙의 신조 고백과 거룩한 선물(성체성혈)을 모시기 전에 집전자는 “모든 이에게 평화”¹¹⁾라는 잘 알려진 표현을 통해 회중들에게 평화를 기원한다. 그러면 회중은 “또한 사제에게도”라고 화답한다. 성찬예배의 종반에 예배 집전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헤어집시다.”라고 연도한 후에 ‘아름다운 문 옆 주님의 성화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불리는 성찬예배의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 기도에서는 “주님의 세계와 교회와 사제들과 우리의 통치자와 군대와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한다. 또한 주교는 크리소스토모스가 말하듯 다음과 같이 한다.¹²⁾

“... 성전에 들어간 그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기원하기 전에는 이 보좌에 오르지 않고, 다시 모든 이에게 평화를 기원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평화를 기원하고 나서 축복을 전하기 시작합니다.”¹³⁾

마지막으로, 신성한 감사의 성사(=성찬예배)가 끝날 때, 집전 주교나 사제는 회중에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헤어집시다.”라고 말하면서 폐식을 알린다. 성찬예배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평화에 대한 기원은

11) “모든 이에게 평화” 기원에 대해 크리소스토모스는 *Πρὸς Κολοσσαίς, Ὀμιλία Γ' (Pros Colossaeis, Homilia 3)*, PG 62:322-323에서 교회의 목자들이 예배 시간에만 평화를 기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기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집에 방문할 때, 바로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말한다. 설교할 때,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하고, 축복할 때, ‘모든 이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라고 할 때, ‘모든 이에게 평화’ ...”

12) 본 연구의 참고문헌에서 성 크리소스토모스에 대한 언급이 다른 두 명의 교부들에 비해 더 많은 것은 크리소스토모스가 정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저술을 썼기 때문이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Migne(161권)의 그리스 교부학 전집을 보면 크리소스토모스의 작품은 47-64(18권)인 반면에 대 바실리우스는 29-32(4권), 그레고리오스 신학자는 35-38(4권)이 있다.

13) *Ἰωάννης ὁ Χρυσόστομος*(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이하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직간접적으로 22번 반복된다. 하느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도, 하느님을 향한 어떠한 예물과 선물을 봉헌할 수도 없다.(마태오5:23-25) 크리소스토모스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 대해 어떤 원한이 있다면 당신은 그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제단에 예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¹⁴⁾

다른 부분에서 크리소스토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 계명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통해 두 가지를 의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 사랑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 어떤 예물보다 사랑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예물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화해를 필수조건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¹⁵⁾

평화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교회의 전례에 대한 언급을 마치면서 우리는 평화가 성찬예배에서만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 그러면서 또한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예배 후의 예배”¹⁶⁾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정교회 영성의 목표이자 기준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14)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1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7:250.

16) “예배 후 예배”란 용어는 알바니아의 아나스타시오스 대주교가 1975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성찬예배가 성당에서 신성한 감사의 성사를 드릴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에 참석했던 신자들의 매일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개념이다. 참조: Γιαννούλατος(2013), 267 참조; Bria(1980), 66 et seq; Τσομπανίδης(1996), 146 et seq.

계속해서 이 크나큰 평화라는 선(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교부들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자.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뛰어난 시적, 수사학적 방식으로 평화라는 귀중한 선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오 사랑스런 평화여, 실로 감미로운 것이여 ... 오 사랑스런 평화여, 내가 끊임없는 보살피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여, “하느님의 평화”(필립비4:7), “평화의 하느님”(II고린토13:11),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에페소2:14)라고 말하듯,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이 네게 속하고, 하느님 그 자체이면서, 마치 하느님과 같은 것이여.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여. 오 사랑스런 평화여, 모두가 칭송하지만 소수만이 지키는 선이여.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진 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인가? 나는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너를 사랑하고 갈망하노라. 네가 여기 있을 때 나는 너를 돌보고 소중히 여기며, 네가 없을 때엔 많은 애도와 눈물로써 네가 돌아오기만을 부르고 있노라. ...¹⁷⁾

대 바실리오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¹⁸⁾

대 바실리오스가 평화라는 선에 얼마나 전념했는지, 또 평화의 보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이든 기꺼이 감수하려 했는지는 다음의 진

17) Γρηγόριος ο Θεολόγος(그레고리우스 신학자)(이하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1132.

18)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737B.

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와 그 평화로 이끄는 것 외에는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 ... 나는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으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작고 미미한 것이 아닌 확실하고 중요한 것을 하며, 그를 위해 내가 먼 길을 가는 수고도 마다치 않으며, 어떠한 귀찮은 일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평화를 위하여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¹⁹⁾

대 바실리오스에 따르면 “위대하고 경이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심오한 선”²⁰⁾인 평화의 덕은 그리스도인의 자명한 특성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잘 어울린다.”²¹⁾ 대 바실리오스는 평화라는 위대한 선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 만약 평화가 그 ‘실천’이 아닌 ‘이름’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몇몇만 선택하여 그들하고만 평화를 나누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회의 선으로부터 배제할 것인데, 이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²²⁾

성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의 선의 중요함에 관한 많은 가르침 중에 다음을 말하고 있다.

평화는 정말 위대한 선이어서 그것을 가꾸고 창조하는 자는 하느님

19)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493A.

20)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528B.

21)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528B.

22)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932A.

의 아들이라 불린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오5:9) 그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온 목적은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은 사탄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형제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다투게 되는 것임을 잘 생각하며 당신의 충동적인 분노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²³⁾

평화는 인간 사회를 위한 최고의 선이어서 아무도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크리소스토모스는 또한 “그 어떠한 것도 평화의 선과, 또 서로 간의 일치와는 비교될 수 없다.”고 여긴다.²⁴⁾ 다른 관련된 언급에서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를 “어머니”라고, 또 “기쁨의 조건”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원할 때, 설교할 때, 평화를 구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외치면서 평화를 전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평화는 모든 선함의 어머니고, 기쁨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 평화는 사랑으로 향하는 길을 준비한다.²⁵⁾

크리소스토모스는 또 다른 설교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어머니”, “양육자”라고 부르고 있다.

... 평화는 우리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르는 자요, 어머니이다.

23)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322.

24)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25)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322.

여기서 나는, 단지 어떤 인사말에서나 연회에서 주고받는 형식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른 평화, 영적 일치에서 나오는 평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²⁶⁾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하고 흥미로운 차원을 제시하면서, 평화란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가치 있고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창조를 지배하는 법칙에도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 평화가 없는 세상은 결국 ‘장식’²⁷⁾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피조물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의 존재를 통해, 침묵 가운데 나타나신다.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성의 한계 안에서 균형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면서 다른 존재에 대해 적대감을 품지 않을 때, 또 창조주 하느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장식’이 되며, 인간의 머리로는 그보다 더 훌륭하거나 장엄한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된다. 세상에 평화가 존재 하길 멈춘다면, 그때 세상은 또한 ‘장식’이 되는 것도 멈춘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는 세상 만물에 있는 평화와 조화는 사람에게 화합을 가르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조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통치되는 것, 또 특정한

26)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27) 그리스어로 ‘세상’을 뜻하는 단어 κόσμος와 ‘장식’을 뜻하는 단어 κόσμημα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동시에 의미상 같은 것을 가리킨다. 특히, κόσμημα가 의미하는 ‘장식’은 단순히 ‘장식품’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아름답고 귀중하고 가치있고 선별된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장식’의 개념을 나타낸다.

방향에 따라 움직이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들과 발맞추어 공존해나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정과 화합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 만물의 그 예를 통해 사람들에게 화합에 대해 직접 보여주고 알려준다.²⁸⁾

그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평화를 사랑하고 불화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화라는 빛나는 선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 즉, 불화를 미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속하면서 신성함에 가까이 머문다.²⁹⁾

결론적으로 정교회의 위대한 세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평화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 최고의 선이며, 평화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에는 귀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는 어떻게 얻는가?

평화는 인간의 삶과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교회의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세 교부들의 글에는 평화란 우리가 평화의 주변에 머물 때에만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룰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적 평화가 유지되며, 그리고 이런 내적 평화를 통해 다른 이들과 화해와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 비로

28)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740.

29)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740.

소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내적, 외적 평화의 양방향의 관계는 더욱 분명하다. 외적-사회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적 평화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당신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치게 하려 하신 것이다.”라고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는 말하고 있다.³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회의 평화를 간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첫째, 외적-사회적 평화는 정의와 사랑과 함께 나아감을, 둘째, 내적 평화는 사회적 평화에 꼭 필요한 조건임을 믿는다.

교부들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또 민족과 민족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평화 유지의 필수조건이라고 설정할 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론이나 말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의 결핍은 사회적 불안과 평화의 교란을 초래하는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무나 끔찍한 전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장 혼한 것으로, 아군이 적군과 싸울 때이다(침략전쟁). 두 번째는 평화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울 때이다(내전). 세 번째는 자기가 자신과 싸울 때이다(내면의 전쟁). 바로 이 세 번째 전쟁이 다른 어떤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것이다. 왜냐하면 적군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비록 살육이 있었지만, 영혼에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경우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 왜 그런지 예언자의

30)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1149B.

말을 들어보자. “...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평화로운 자였다.”(시편120:6-7) 하지만 세 번째 전쟁은 우리가 위험 없이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영혼을 거역하며 끔찍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육체의 쾌락, 분노, 시기심을 자극할 때는,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약속된 선(善)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보고 또 살피서, 이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게 해야 하고, 혹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억제되고 그치도록 해야 한다. 세상은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가져야 한다. 이런 평화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외적인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³¹⁾

또한 크리스스토모스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의 조건이자 원인인 하느님과 평화와 친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전쟁을 일으키면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느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반대편에 자리하면 어떠한 유익도 가지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모든

31)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스스토모스), PG 62:533-535.

일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느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는, 그가 가진 지위나 하는 일이 악과는 먼 안전한 곳에 있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³²⁾

사람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면,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다. 대 바실리오스는 평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온화한 특성이 분명하고, 반면에 욕망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여러 축복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축복은 마음의 안정인 평화이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겸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합당한 자들의 영혼을 지켜줄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필립비4:7) 하느님의 평화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³³⁾

무엇이 평화를 파괴하는가?

평화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으로 무엇이 평화를 파괴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평화는 매우 쉽게 파괴되는 아주 예민한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다. 전쟁은 언제나 평화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도망친다. 그래서 교부들은 카인과 아벨 형제의 첫 번째 전쟁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죄이자 가장 큰 악이 된 전쟁이라는 윤리적, 사회적

32)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스스토모스), PG 61:14.

33)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29:305.

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은 인간적인 죄의 욕망들, 특히 부에 대한 열광, 탐욕, 권력자들의 이익 추구가 사회에 평화가 결핍되는 데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욕망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 굶주림, 유기(遺棄), 전쟁 및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

크리소스토모스는 구체적으로 평화가 파괴되고 신자들의 일치가 파괴되는 원인이 욕망의 “밧줄”, 특히 물질적 재화에 대한 집착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현재의 것에 대한 사랑, 영광과 돈과 쾌락에 대한 소망만큼이나 많은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밧줄을 끊고 영혼이 그 어느 것에도 지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고 미덕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³⁴⁾

크리소스토모스는 또한 무자비한 부자들에게 특히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그들의 탐욕을 심각하게 견제하는데, 이러한 탐욕은 한편으로는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는 의문을 제기한다.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하느님의 것이 아닙니까?”(시편23: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으신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속한 것이 된다. 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하느님의 계획을 살펴보기 바란다. 하느님은 공기, 태양, 물, 땅, 하늘, 바다, 빛, 별과 같은 것을 모두가 공통으로 누리도록, 인류가 그것

34)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5:343.

을 보며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셨다. 모두가 마치 형제처럼 그것을 똑같이 누리도록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눈, 같은 몸, 같은 영혼, 같은 신체 구조를 주셨고, 땅에서 난 모든 것을 주셨고, 한 남자(아담)에게서 모두가 나도록 하였고, 모두를 같은 세상에 머물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셨다. ... 사람들은 원래 공통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차지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면, 마치 자연이 분노하듯 싸움이 시작된다. 하느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를 형제로 이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투고 갈라지며 소유물을 쟁취하고 “네 것”과 “내 것”이라고 냉정하게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시작되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불의가 자라난다.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싸움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다.³⁵⁾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가진 욕망의 힘에 대한 크리소스토모스의 현실적 관찰은, 불행히도 친척이나 형제 사이의 불화와 분쟁 상황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크리소스토모스는 또한 이사야의 예언,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이사야2:4)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무기 훈련을 받아 이 일에 무지한 사람이 없었고,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과 싸웠고, 어디에서나 전쟁의 분위기가 지배했으나, 이제는 세상의 더 많은 지역이 평화롭게 살고, 모든 사람은 두려움 없이 예술에 종사하고 땅을 경작하고 바다를 여행하며,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군대 규모는 작아졌다.

3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563.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이 줄어든 군대마저 그 존재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군대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³⁶⁾

위 구절을 보노라면, 만약 이 거룩한 교부(크리소스토모스)께서 테러, 폭력, 온라인 범죄를 포함한 온갖 범죄들, 세계적인 규모의 많은 전쟁 시대인 오늘날에 살았다면 예언서의 말씀을 아마도 다르게 논평했을 것임을 누군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리소스토모스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지상에서 평화를 몰아냈음을 지적하며 평화를 다시 찾아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방하고 축출하여, 평화는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지상에 평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평화의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 곧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버리고, 신중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자.³⁷⁾

대 바실리오스는 전쟁의 원인으로 부를 언급하며, 무기 제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현대 문명이 ‘무기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군비와 무기 거래가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제에 있는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매우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쟁의 원인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전쟁의 원인이 되는 부가 언제까지 통치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전쟁을 위한 무기가 만들어지고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인가?”³⁸⁾

36)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5:207.

37)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7:191.

38)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1:297B.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사람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탐욕이라고 지적한 후, 계속해서 고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대의 문제인 과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세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탐욕은 전쟁을 낳고, 전쟁은 높은 세금을 발생시키니, 이는 우리 정죄의 가장 무거운 결과이다.³⁹⁾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정죄하며, 전쟁을 세상의 악과 죄의 결과로 간주한다.”⁴⁰⁾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도 바울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로마서12:18)라고 말하듯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크리소스토모스는 사도의 말씀에 논평하며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물론 그(바울로)는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매우 올바르게 말했다. 잃어버린 경건함(믿음)을 되찾기 위해 항의를 하거나, 부당함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할 때처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항의나 투쟁이 가능한지 하는 의문이 누군가에게 생긴다면, 바울로가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I고린토7:15)라고 말하며 부부사이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을 시사점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39)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1061A.

40) “The Mission of the Orthodox Church in Today’s World”, 4:1, *The Official Texts of the Holy and Great Synod in Crete, Greece(2016)*.

이렇게 말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온 힘을 다하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도 논쟁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마라. 그러나 어디선가 경건함(믿음)이 훼손된 것을 본다면, 타협하여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진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용감하게 맞서라.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미움을 갖지 말고, 그들 의견을 외면하지도 말고, 그저 오류하고만 다투어라.’ 만약 상대방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당신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지 말고, 그에게 좋은 친구로서 다가가라. 앞서 말했듯, 어느 순간에도 진리를 배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하여라.⁴¹⁾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착취하는 사람들이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와 동일시되거나 동행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이에 대해 “미덕으로 이끄는 전쟁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평화보다 낫다.”⁴²⁾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경우, 위대한 세 교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사람과 잘못된 믿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즉, 잘못된 가르침에는 맞서 싸우되, 오류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면서 그의 영혼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말라는 것이다.

이단과 분열에 대한 투쟁, 그리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의 몸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투쟁은 탁월한 선교적 행동이다. “화해”의 행위(로마서5:11 참조)는 분열을 바로잡고, 분열된 세계가 성령 안에서 일치하도록 촉진한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일치는 오순절에 처음으로 실현된 것으로, 그때 거룩한 성령은 “모든 것을 일치로 불렀다.”⁴³⁾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단적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신의 투쟁에서, 이단과 이단자는 구별되어야 함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단과 끊임없이 싸

41)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0:611.

42)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488.

43) 오순절 축일 시기송, *Πεντηκοστήριον*(1959), 205.

우면서 동시에 이단자를 열렬히 사랑한다. 그리하여 이단자들과 싸워서 안 된다고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다.

... 우리는 오류에 빠져 헤매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빠져 있는 타락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이단과 투쟁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쟁은 산 자를 죽은 자로 만들지 않고, 온화하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끈다. 나는 물질적 무기로써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써, 이단자가 아닌 이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빠진 오류를 미워하며 그 사람을 오류에서 끌어내고자 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이기에, 나는 인간 존재와는 전쟁을 하지 않고, 마귀가 손상시킨 그들의 견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지만 환자의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이단자들과 싸운다면 사람들 자체와 싸우지 않고 그들의 오류를 제거하고 부패를 정화하고자 한다. 남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것,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습성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이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⁴⁴⁾

어떤 이들은 크리스스토모스가 가르친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그는 다른 설교를 통해 그들의 의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 싸움을 거는 자들과

44)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스스토모스), PG 50:701.

우상숭배자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라고 제게 물어 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미워하라고, 사람이 아니라, 나쁜 행실과 부패된 의도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느님의 작품이지만 오류는 마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과 신성모독자들은 박해자요, 모욕자요,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악을 전가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한 바울로가 과연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느님께 간구합니다.”(로마서10:1)라고 했고, 또 다른 때에는,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로마서9:3)라고 했습니다.⁴⁵⁾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단들과 소통을 했고, 자신의 양 떼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했다. 신자들의 믿음이나, 교회의 소중한 보물인 평화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특징적인 것은 그가 쿠쿠소로 유배가 있을 때 스키투폴리스의 테오도시오스 주교에게 쓴 글인데, 그가 유배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교님께서 과거에 책임 있는 자세로 교회를 위협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온 세상에 그토록 많은 소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적합한 용기를 가지고 외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계획한 자들을 지혜로운 당신들이

4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1:282.

외면하고, 그들과 당신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을 때, 그것은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한 안전한 일이 될 것이며, 악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⁴⁶⁾

그리고 그의 유명한 설교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더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정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피하고 포기해야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가까이 에 데려와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또 그로부터 해를 입는다면, 그러한 종류의 우정을 끊고 피하면서 적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을 이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저 피하기만 하라.⁴⁷⁾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크리소스토모스는 진정한 선교적 감수성을 갖고 있었기에, 이기적인 고립이나 폐쇄적인 주변부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광신적 믿음이나 집착적 완고함이 생기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확히 볼 수 있듯, 세속적인 평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그것이 죄의 욕망과 나약함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의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개념과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 없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그의 모든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의 좋은 예를 통해 사랑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46)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2:655.

47)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708: “... 친구 간에 영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친구 관계에서 떠나라. 다툼 없이, 전쟁 없이 그냥 떠나라.”

그러면 강도들은 어떻게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가? 대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 달라. 당연히 그들이 서로 강도 짓을 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가 몫을 나누어 가진다 하더라도, 정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배분하지 않으면, 그들도 다툼과 분쟁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것에서는 평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사람들이 정의와 덕을 가지고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럼 혹시 연적(戀敵) 관계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일까? 탐욕스러운 자와 탐욕스러운 자는 결코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롭지 않고 관대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당연히 멸망했을 것이다. 배고픈 두 맹수가 먹이가 없으면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탐욕스러운 자와 악인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덕은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한 도시를 세운다고 가정해보자. 시민들은 탐욕스럽고, 모두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모두가 서로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런 도시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간음하는 자들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할까? 당신은 단 두 명도 이에 동의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 버린 것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 사랑이 식은 원인은 무법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기심에 이르게 하여 지체를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며, 무력화시키고 분해시킨다. 그러나 어디라도 덕이 있는 곳이라면, 그 반대가 된다. 한 사람이 덕이 있으면, 그가 돈이 많은 부자이고, 그 상대방에는 가난한 수천 명이 있을지라도, 이 두 편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두 편이 모두 탐욕스럽다면, 단지 둘만 있어

도 결코 평화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덕이 있다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부터 덕이 나오고, 덕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돈을 우정보다 더 선호하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감하게 견뎌낸다.⁴⁸⁾

경건함이 학대와 모욕을 당할 때는, 양쪽이 불일치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영혼이 전쟁터가 되어서 사람에게 대한 혐오감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때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믿음과 이단적인 신념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군가가 우리와 평화롭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 속에 그 사람에게 대한 증오나 동요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진리를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친구로 보아야 한다.⁴⁹⁾

사랑은 궁극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충만하다면, 사람들의 삶을 주관할 것이고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주실 것이다.”(II고린토13:11)

위에서 언급한 것의 결론은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고, ‘진리(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 평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교부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에게 대한 증오와 전쟁을 허용하지 않고, 다만 오류와 이단에 대해서만 반대를 취한다. 또한 그들

48)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73.

49)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0:611.

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없이도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는 고귀한 선이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정교회의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인 대 바실리오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며 확인했듯,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했다. 사랑과 정의와 불가분으로 연결되는 평화의 문제가 그 한 예인데, 그들은 이 주제를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사목적으로 다루었다. 즉, 집무실에서 논문을 작성하듯이 이론적인 방식으로 그토록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저술을 거의 모두 예배에서 설교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양 떼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공급하였고,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였다. 교부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에 가장 앞에 선 목자들이었고, 무엇을 하든 교회의 목자들로서 봉사하는 맥락에서 했고, 하느님의 유일하며 되풀이되지 않는 형상인 사람이 “새 사람”(II고린토5:17 참조)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절대적으로 초점을 맞춘 교부들의 가르침은 사회 문제에 대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부패한 기득권을 뒤집을 수는 있지만,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서서히 스스로가 더 나쁜 기득권층이 되는, 그런 식의 사회적 혁명은 교부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갱생과 “내적 인간”(참조, II고린토 4:16, I 베드로3:4)의 변모에서 시작되는 영적 혁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부들의 큰 공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며 그 다음 세대의 교부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계속해서 현대 정교회 신학자들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동족상잔

의 전쟁은, 만약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평화의 왕”(이사야9:5)의 뜻을 따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말씀이 평화이니”⁵⁰⁾ 그들이 성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교부들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확고히 지향했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부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하느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다면 한반도에서도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확산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내적 평화를 가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마태오5:9)

크레타에서 열린 정교회의 거룩하고 위대한 공의회(2016년 6월 18-26일)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선언했다.

...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분 안에 성취된 만물의 회복으로부터, 하느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위대성으로부터,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인류와 세상의 유기적 통일성으로부터, 평화와 자유와 사회 정의의 원칙들의 보편성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꽃피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완숙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참된 평화는 이 모든 그리스도교적 원칙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승리의 열매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오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평화를 간구하면서, 정교회가 매일의 기도 안에서 항상 서원하며 호소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이 평화다.⁵¹⁾

50) Χρι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168.

51) “The Mission of the Orthodox Church in Today’s World”, 3:1, *The Official Texts of the Holy and Great Synod in Creta, Greece(2016)*.

참고문헌

<한국어 2차 자료>

알렉시우 요아니스(2014),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정교회 교부총서 1)』, 정교회출판사.

파파도풀로스 스틸리아노스(2017), 『성 대 바실리오스(정교회 교부총서 2)』, 정교회출판사.

파파도풀로스 스틸리아노스(2019),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정교회 교부총서 3)』, 정교회출판사.

<외국어 1차 자료>

Migne Paul Jacques(1857-1866),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Graeca*. (PG)

Βασιλειος Καισαρειας(케사리아의 바실리오스).

- Εἰς τὸν ΚΗ΄ Ψαλμὸν (Eis ton 28 Psalmon), PG 29:305
- Εἰς τὸν ΛΓ΄ Ψαλμὸν (Eis ton 33 Psalmon), PG 29:376 B-C.
- Ὁμιλία πρὸς τοὺς πλουτοῦντας (Homilia pros tous ploutountas), PG 31:297B.
- Τῆ Βουλῆ Τυάων, Ἐπιστολὴ 97 (Epistole 97), PG 32:493A.
- Τοῖς ἐν Ταρσῶ περὶ Κυριακόν, Ἐπιστολὴ 114 (Epistole 114), PG 32:528B.
- Τοῖς Παραλιώταις Ἐπισκόποις, Ἐπιστολὴ 203 (Epistole 203), PG 32:737B.
- Πατροφιλοῦ ἐπισκόπου τῆς ἐν Αἰγαῖς Ἐκκλησίας, Ἐπιστολὴ 250 (Epistole 250), PG 32:932A.

Γρηγόριος ο Θεολόγος(그레고리오스 신학자).

- Ἀπολογητικὸς τῆς εἰς τὸν Πόντον φυγῆς (Apologetikos tes eis ton Ponton fyges), PG 35:488.
- Λόγος στ΄ (Εἰρηνικός) [Logos 6], PG 35:740.
- Λόγος ιθ΄ (Εἰς τὸν Ἰουλιανόν) [Logos 19], PG 35:1061A.
- Λόγος κβ΄ [Logos 22], PG 35:1132.
- Λόγος κβ΄ (Εἰρηνικός β΄) [Logos 22], PG 35:1149B.

Ἰ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요한 크리소스토모스).

- Περί ἀκαταλήπτου Ἀπόντος τοῦ ἐπικόπου, πρὸς Ἀνομοίους, Ὁμιλία α΄ (Peri akataleptou, Homilia 1), PG 48:708.
- Κατὰ Ἰουδαίων (Kata Ioudaion), 3, PG 48:870.
- Εἰς τὸν ἅγιον ἱερομάρτυρα Φωκᾶν καὶ κατὰ αἰρετικῶν (Eis ton hagion hieromartyra Phocan kai kata hairetikon), PG 50:701.
- Θεοδοσίῳ ἐπικόπῳ Σκυθοπόλεως, Ἐπιστολὴ πΘ΄ (Epistole 89), PG 52:655.
- Εἰς τὸν ΜΕ΄ Ψαλμὸν (Eis ton 45 Psalmon), PG 55:207.
- Εἰς τὸν ΡΙΘ΄ Ψαλμὸν (Eis ton 119 Psalmon), PG. 55:343.
- Εἰς τὸ κατὰ Ματθαῖον, Ὁμιλία ι΄, (Eis to kata Matthaion, 10), PG 57:191.
- Εἰς τὸ κατὰ Ματθαῖον (Eis to kata Matthaion), PG 57:250.
- Εἰς τὴν πρὸς Ῥωμαίους, Ὁμιλία κβ΄ (Eis ten pros Romaious, 22), PG 60:611.
- Εἰς τὴν Α΄ πρὸς Κορινθίους, Ὁμιλία α΄, (Eis ten proten pros Corinthious, 1), PG 61:14.
- Εἰς τὴν Α΄ πρὸς Κορινθίους, Ὁμιλία λγ΄ (Eis ten proten pros Corinthious, 33), PG 61:282.
- Πρὸς Ἐφεσίους, Ὁμιλία θ΄, (Pros Ephesious, 9), PG 62:73.
- Πρὸς Ἐφεσίους, Ὁμιλία κδ΄ (Pros Ephesious, 24), PG 62:168.
- Πρὸς Κολοσσαεῖς, Ὁμιλία Γ΄ (Pros Colossaeis, Homilia 3), PG 62:322-323.
- Εἰς τὴν Α΄ πρὸς Τιμόθεον, Ὁμιλία ζ΄, (Eis ten proten pros Timotheon, 7), PG 62:533-535.
- Εἰς τὴν Α΄ πρὸς Τιμόθεον, Ὁμιλία θ΄, (Eis ten proten pros Timotheon, 9), PG 62:563.

<외국어 2차 자료>

Bria Ion(1980),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Martyria/Mission, The Witness of the Orthodox Churches Today, Geneve: WCC.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2008), Encountering the Mystery, Understanding Orthodox Christianity Today, New York: Doubleday. 한국어 번역본 참조: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2018), 『신비와의 만남』, 정교회출판사.

Γιαννουλάτος Αναστάσιος(Αρχιεπίσκοπος Αλβανίας) (Giannoulatos Anastasios)(2013), Πορευθέντες... Ἡ λησιμονιμένη ἐντολή. Ἀπὸ τὸν λήθαρχο στὴν ἀφύπνιση, Ἀθήνα: Ἀποστολικὴ Διακονία.

Goar(1960), Euchologion Sive Rituale Graecorum, Graz: Akademische Druck - U. Verlagsanstalt.

Hamalis T. Perry and Karras A. Valerie eds.(2017),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on War,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Ἱερατικόν (Hieratikon)(1981), Ἀθήνα: Ἀποστολικὴ Διακονία. 한국어 번역본 참조: 『사

제용 예식서』(2007), 정교회출판사.

Μηναίων Ἰανουαρίου (Menaion Ianouariou)(1979), Αθήνα: Αποστολική Διακονία.

Πεντηκοστάριον (Pentekostarion)(1959), Αθήνα: Αποστολική Διακονία.

Quasten Johannes(1993), Patrology, vol. 1, Westminster, Maryland: Christian Classics, INC.

Quasten Johannes(1993), Patrology, vol. 3, Westminster, Maryland: Christian Classics, INC.

Ratzinger Joseph(1969), “Die Bedeutung der Väter für die gegenwärtige Theologie”, Κληρονομι
α 1, Θεσσαλονίκη.

The Official Texts of the Holy and Great Synod in Creta, Greece(2016). 한국어 번역본 참조:
『2016 크레타 정교회 성 대 공의회 공식문서』(2018), 정교회출판사.

Τσομπανίδης Στυλιανός (Tsompanidis Stylianos)(1996), “Λειτουργία μετά τη Λειτουργία
ια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Η συμβολή της Ορθόδοξης Εκκλησίας και
Θεολογίας στην κοινή χριστιανική μαρτυρία για δικαιοσύνη, ειρήνη και
ακεραιότητα της Δημιουργίας”, Ph. D. Diss.,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Ware Timothy(2015), The Orthodox Church: An Introduction to Eastern Christianity. 3rd ed.,
Penguin Books.

Χρήστου Παναγιώτης (Christou Panagiotis)(1978), Ο Μέγας Βασίλειος, Βίος και πολιτεία,
Συγγράματα, Θεολογική σκέψις (Ho Megas Vassilios, Vios kai politeia,
Syggrammata, Theologike skepsis), Θεσσαλονίκη: Πατριαρχικόν Ἰδρυμα Πατερικ
ῶν Μελετῶν.

Χρήστου Παναγιώτης (Christou Panagiotis)(1981), Ελληνική Πατρολογία (Hellenike
Patrologia) Α΄ Θεσσαλονίκη: Πατριαρχικόν Ἰδρυμα Πατερικῶν Μελετῶν.

Peace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the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Metropolitan Ambrosios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Abstract

The topic of the present study is: "Peace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the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In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and later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there is a great deal of extensive and valuable teaching on peace, but it is not sufficiently known to the wider Korean public.

Because the available patristic material on peace is enormous in volume, for this reason we have limited our research to only three great Fathers and ecumenical teachers of the Orthodox Church, namely Basil the Great, Gregory the Theologian and John the Chrysostom, who are considered among to the great Fathers the greatest. These three "greatest luminaries of the Trinitarian Godhead" lived and acted during the first millennium of united Christianity, specifically the 4th and 5th centuries, and for this reason they are honored as great Ecumenical Fathers and Teachers of the Eastern and Western Churches as well.

But the extant written work of all three of the afore-mentioned great Fathers is also vast in scope. For this reason, we set as the purpose of this work the presentation of only a sample of their teaching on the capitally important subject of peace. Their teaching will help us to understand, firstly, how they understood the great spiritual and social topic of peace in their time and secondly, how they influenced the theology of the Orthodox Church on the topic of peace until today.

We believe that the present study has the element of originality because, as far as we know, there is no corresponding

work on the peace teaching of the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in the Korean literature. The originality of our study also lies in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the patristic texts are presented in Korean,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Greek language, in which they were originally written, and not from other langua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topic we have used only primary sources, but in the bibliography we mention also a few secondary sources from the multitude of existing ones in many other languages.

Keywords: Orthodox Church, Church Fathers, Peace, War, Passion, Basil the Great, Gregory the Theologian, John the Chrysostom
